

시사교양본부 시청률 넘어서서 화제성 집중

라디오센터 Beyond Radio 뉴미디어와 유기적 결합



SBS 교양은 작년 한 해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생활의 달인>, <TV 동물농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영재발굴단> 등 8개 프로그램이 교양 부문 2049시청률 톱 10에 오르는 등 활약을 이어갔다.

하지만 교양 프로그램의 특성상 드라마나 예능에 비해 SNS에 노출되는 화제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남상문 시사교양본부장은 “요즘은 광고가 화제성을 따라가기도 한다. 시청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제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사교양 장르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시사교양본부는 시청률과 더불어 화제성에 집중하기로 하고 화제성을 이어갈 수 있는 시리즈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주시평 PD가 준비하고 있는 <치타>는 올해 말 방송된다. 교양의 간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전다세당력을 강화하여 화제성을 끌어올린다.

화제성 제고는 TV 밖에도 해당된다. <TV 동물농장>과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SNS 채널 ‘애니멀봐’, ‘우와한 비디오’의 안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시사교양본부는 올해 이를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4월 론칭을 목표로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시사교양본부는 작년 12월 1일 자로 시사교양본부로 일원화된 동물농장 프로젝트 사업을 안착시켜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작물을 ‘애니멀봐’ 콘텐츠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GS리테일과 MOU를 체결하여 앱 개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수익구조 개선에 나섰다.

라디오는 파워FM이 2위와 큰 차이로 수년째 청취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타 채널의 추격이 맹렬한 상황이다. 또 러브FM의 경쟁력 상승이 완만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디오센터는 올해 목표를 파워FM 초격차 1위 채널 달성, 러브FM 두 자릿수 청취율 진입으로 잡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파워FM의 <두시탈출 컬투쇼>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로 <컬투쇼> 콘텐츠를 유튜브 및 컬투쇼 SNS 계정을 통해 재생산하고, 전국을 돌며 오픈스튜디오를 여는 것을 기획 중이다. <붐붐파워>는 왕카를 활용, 청취자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여기 콘서트’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박소현의 러브게임>도 청취자 사연을 웹툰으로 만드는 등 라디오 방송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러브FM의 경우 청취율 3% 이상 프로그램을 1개 이상 만들어 청취자들을 점진적으로 러브FM으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라디오센터는 미래 오디오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청취자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청취자 의견이 즉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대체광고를 SB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광고에도 적용, 수익을 확대한다.

정태익 라디오센터장은 “올해도 만족보다는 절실함의 자세로 새로운 미디어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신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설의 빅피쉬

전설 속 물고기를 찾아 세계로! '진짜 낚시꾼'들의 신개념 판타지 모험 4월 5일(금) 첫 방송

예능본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설의 빅피쉬>(연출: 김진호, 김화정)가 4월 5일(금)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마니아층만 즐기는 어려운 취미였던 낚시가 주류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낚시 인구 700만 시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낚시 전성시대다. 너도 나도 더 큰 손맛을 찾아 전국 구 강태공이 되어가는 이때에, <전설의 빅피쉬>가 '전설 속에서 볼 법한 세계의 빅피쉬'라는 새로운 미끼를 던졌다.

'전설 속에서 볼 법한 세계의 빅피쉬'란, 아마존의 '피라루쿠'부터 몽골의 '타이먼', 태국 메콩강의 '자이언트 캣피쉬'까지 말 그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 몸집을 키워온 대어들이다.

'빅피쉬'를 찾아 떠나는 익스트림 어(漁)행기

<전설의 빅피쉬>는 연예계 낚시 드림팀이 전 세계를 누비며 '빅피쉬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짜 낚시꾼들의 환상적인 모험을 다루는 '익스트림 어(漁)행기'이다. 빅피쉬 드림팀의 첫 번째 도전 장소는 태국이다. 희귀 어종의 보고인 이곳에서 최대 크기 6m, 최대 무게 600kg의 거대 가오리 크라벤부터 바다의 치타로 불리는 돛새치까지 민물과 바다를 넘나들며 빅 피쉬 그랜드 슬램에 도전한다. 또한 현지의 낚시 고수들로부터 그들의 낚시 문화를 배우고 동시에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쳐 그들의 삶과 문화를 체험해 본다.

이태곤*지상렬*정두홍*진우*윤보미 드림팀 결성

빅피쉬 드림팀을 이끌 행동대장으로 낚시 황태자 이태곤이 출격한다. 자타공인 연예계 낚시 1인자인 그는 각종 예능 프



로그램을 통해 1m가 넘는 만새기와 거대 참돔 등을 낚아내며 그 명성을 입증했다. <전설의 빅피쉬>에서는 이태곤의 월드 클래스 낚시 실력은 물론, 물고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눈높이 교육을 실천하는 낚시 선생님이로 변신하는 등 전천후 활약을 볼 수 있다. 이어 4세 때 72cm 잉어를 잡았다는 자칭 민물 낚시계의 큰손, 지상렬이 따른다. 그의 입담과 친화력은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 때때로 터져 나오는 낚시 명언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최고의 무술감독이자 액션 배우인 정두홍도 출사표를 던졌다.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일곱 살 때부터 민물낚시를 했다

는 정두홍은 빅피쉬 드림팀의 만형으로 '가진 건 힘뿐! 큰 놈만 잡겠다'는 강한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외의 허당미를 발산, 가장 많은 방송 분량을 확보할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워너의 진우 역시 목포 임자도 어부의 아들로, 모태 낚시 실력자이다. 쟁쟁한 실력자들 앞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어의 입질 앞에선 어느새 상남자의 반전 매력을 보였다. 홍일점 막내 에이핑크 윤보미는 차세대 '낚시여제'를 노린다. 합류 전 11 낚시 수업까지 받으며 프로 열정러의 면모를 보인 그녀는 빅피쉬와의 사투에서 악으로, 강으로 버티는 근성을 증명하며 낚시 초보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SBS 모비딕 새로운 콘텐츠 연달아 공개



최초의 방송국 배경 뷰티 콘텐츠 <분칠왕>

SBS 모비딕의 새로운 뷰티 콘텐츠 <분칠왕>이 3월 22일(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분칠왕>은 방송국을 배경으로 하는 최초의 뷰티 콘텐츠로,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가 개인 스튜디오를 벗어나 방송국에서 '방송 물로 통칭되는 방송국 분칠의 노하우, 방송국의 시스템과 백스테이지 뷰티 팁을 배우며 '분칠왕'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린다. 매회 퀘스트를 수행하며 뷰티 크리에이터에서 '분칠왕'으로 성장해가는 레오제이의 좌충우돌 방송국 뷰티 고군분투기는 재미와 정보를 준다.

<분칠왕>은 1억 뷰를 기록하며 모바일 콘텐츠 사상 최단기간 화제성을 거둔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와, 5천만 뷰를 눈앞에 둔 <썸마이웨이>를 제작한 SBS 모비딕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 팀이 제작하는 콘텐츠로 많은 기대를 모은다. 옥성아PD는 "사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더 강력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응원을 부탁했다. <분칠왕>은 SBS 모비딕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 및 SBS NOW 등 SBS 공식 디지털 채널 외 대한민국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된다.



본격 친환경 캠퍼스 드라마 <농부사관학교>

모비딕이 제작한 숏폼 드라마 <농부사관학교>가 3월 30일(토), 4월 6일(토) 양일에 걸쳐 밤 12시 20분부터 SBS를 통해 방송된다.

<농부사관학교>는 국내 유일 국립 농수산대학에 모인 각양각색의 청년남녀들이 펼치는 '본격 친환경 캠퍼스 드라마'다. '농수산대학'이라는 신선한 배경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잔잔한 에피소드들이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구마 농사라는 가업과 배우라는 꿈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강한별 역에는 걸그룹 에이핑크 출신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맹활약 중인 윤보미가 열연을 펼친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으나 불의의 사고 이후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국립 농수산대학에 도망 오듯 진학한 하주석 역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이태환이 맡았다.

<농부사관학교> 디지털 버전은 POOQ를 통해 1개월간 독점 공개된다. 이후 모비딕 채널(유튜브, 네이버TV/V앱, 공TV)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거침없는 입담의 <노타이틀 말 많은 이상준>

스탠딩 개그의 1인자 이상준이 진행하는 <노타이틀 말 많은 이상준>이 3월 18일(월) 첫 방송됐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이상준은 현재 약 16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인싸' 유튜버이다. 이상준이 진행하는 <노타이틀 말 많은 이상준>은 형식과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핫한 아이템을 통해 화제의 중심을 찾아가는 트렌드 밀착형 프로그램이다. 화제의 인물, 장소, 브랜드 등에 이상준의 특유의 입담이 더해져 현실 웃음을 선사한다.

이상준은 <노타이틀 말 많은 이상준>을 통해 시청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시청자가 콘텐츠를 구독한 후,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하고 싶은 아이템 등을 댓글로 작성하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공개되며,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공 TV의 모비딕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BS, 동남아에서 활발한 사업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한다!



SBS와 인니 굴지 대기업 CT그룹 손잡았다

박정훈 SBS 사장은 3월 14일(목)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굴지의 대기업인 CT그룹의 최고 경영자 Chairul Tanjung 회장과 미팅을 갖고, SBS와 CT그룹 간 사업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CT그룹은 지상파/유료방송/뉴스포털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종합 미디어 사업자임과 동시에 소비재 유통, 항공사, 은행 등을 보유한 거대기업이다. Tanjung 회장은 한국 최고의 방송사업자인 SBS와의 협력에 큰 기대를 나타냈으며 SBS와 CT그룹이 보유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사업 시너지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양사는 한-인니 간 드라마 공동제작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특히 Millennial 타깃의 이벤트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연사업/e스포츠/콘텐츠 페스티벌을 각기 CT그룹이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 세부 실행을 위해 사업별 실무자 워킹 그룹이 결성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같은 날, SBS는 CT그룹 산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트랜스비전과 SBS-IN 채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BS는

SBS-IN 채널을 유료 위성플랫폼인 트랜스비전과 인니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인 UseeTV에 송출하기로 했으며, 트랜스비전을 통해 향후 다른 메이저 유료방송 플랫폼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SBS는 인도네시아에 확고한 미디어 사업 기반 및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공동제작/미디어커머스/이벤트 사업 등과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SBS가 참여한 베트남판 <런닝맨>에 뜨거운 관심

한편, 베트남에서는 지난 2년간 <오 마이 베이비> 1, 2 시즌 공동제작으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지난 1월부터 총 20억의 제작비를 투입한 베트남판 <런닝맨> 제작을 시작했다. 동남아 평균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가 한국의 10%인 회당 1~2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20억을 투자한 베트남판 <런닝맨>은 현지 시세로는 약 200억 원을 투입한 가치이다.

글로벌제작사업팀의 안철호 차장이 프로듀서를 맡고, 예능 본부의 최소형 차장이 연출자로 이끄는 한국 제작진 22명과 베트남 제작진 70여 명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금까지 총 4차례 현지 촬영을 순조롭게 마쳤다. 방송 전임에도 불

구하고 주요 SNS에서는 베트남 최고의 MC, 배우, 가수들이 출연한다는 것과 SBS의 제작진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3월 20일(수) 호치민 GEM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7명의 출연자, 방송사 관계자, 행정 책임자, 현지 및 한국 기업 대표자들 그리고 주 호치민 임재훈 총영사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승용 예능본부장과 김용재 글로벌제작사업팀장은 “<런닝맨>을 시작으로 SBS가 베트남에서도 콘텐츠 비즈니스의 1등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제작발표회 후 <런닝맨> 베트남 페이스북 계정에는 젊은 팬들이 40만 명이 넘게 들어오고 있으며 현지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런닝맨>은 현지에서 최고의 시청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지상파 방송 채널인 HTV7을 통해 오는 4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90분 편성)에 총 15회 방송 예정이다.

한편, SBS는 대한민국 방송사 중 유일하게 중국에 이어 동남아 현지 공동제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팬덤을 동반한 SBS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SBS, 세계 최초 5G 기술 기반 UHD 중계방송 성공



SBS와 KT는 3월 13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컨퍼런스룸에서 '세계 최초 5G 기술 기반 UHD 중계방송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SBS에 기업전용 5G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5G 방송 송출 및 사업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3월 19일(화) <모닝와이드> 3부에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제100회 전국체전 ICT체험관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UHD 방송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중계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LTE-MNG 장비를 사용해 중계를 진행해왔는데 속도 지연은 물론 화면 품질 저하 등 기술적인 한계가 발생했다. 이번에 기

업전용 5G 서비스가 적용된 5G MNG는 방송사 전용 5G 네트워크를 통해 속도를 높이고 영상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날 방송을 위해 기술기획팀과 송출팀은 당일 새벽까지 5G 기지국의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여 흠결 없는 방송을 완성했다. 기술기획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요소기술이자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5G 기술 상용화 시기에 맞추고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작년 말부터 이통사에 접촉하여 타사보다 앞서 ‘세계 최초’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기형 기술본부장은 “5G 기술을 기술적인 요소로만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격변하는 미디어 플랫폼 전쟁 상황에서 SBS가 이를 수익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것에 감사... 이제 진짜 시작이다 ~ 제1가 사였어!!

- 주말 <SBS 8뉴스> 앵커 김민형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계기는?

집안에 미술을 하는 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미대에 진학했다. 1학년 때 교수님의 제의로 학교 홍보모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나운서에 대한 꿈이 생겼다. 평소 발표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의 권유도 많이 받았다. 3학년 때 처음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2014 SBS 공채 시험이다. 최종 관문에서 떨어졌지만 연합뉴스 앵커 4개월, MBC 아나운서 2년을 거쳐 SBS로 돌아왔다. 인연으로 생각한다.

준비된 앵커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연합뉴스 TV에서 앵커를 맡았던 터라 그때는 '어떻게 읽을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등 보이는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썼다. 기사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어디를 강조해서 읽을지 생각했다. 뉴스를 알고 전하는 앵커라기보다, 잘 읽는 앵커에 불과했다. MBC에서는 앵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었는데 당시 MBC는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과하게 개입된 기사가 많았다. 이에 대해 나이 어린 신입 계약직 아나운서가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무력감을 느끼던 차에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치렀던 MBC 시험에서 떨어졌다.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지만, 나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6개월의 취준생 생활을 거쳐 SBS에 입사했는데 여긴 정말 천국이다. 매일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이번에는 정말 앵커로서 잘 해보고 싶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들었다.

역시 독립운동가 집안인 배성재 선배님과 "우리는 애국파"라고 웃으면서 얘기한다. 친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이다. 할아버지(김규원)는 일본 유학 중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친구분들에게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선전하다 체포되어 형을 받기도 하셨다. 할아버지를 보며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했다. 잘못을 바로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라고 가르쳐주신 할아버지의 말씀은 아나운서이자 앵커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 준 가장 큰 힘이다.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무드등을 켜고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 안마의자에 앉아서 멍친 어깨를 풀면서 노래를 감상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다. 시원한 캔맥주 하나 마시면 하루의 갈증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온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는데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 글씨에 관심이 생겨서 캘리그라피를 혼자 터득했다. 지인들에게 손 편지를 자주 써 주는데 행복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 주말 <8 뉴스> 예고 스포트에 저의 캘리그라피도 들어갔다.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

이전에 직장을 다녀보니,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모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았다. 동료들, 선배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시청자는 물론이고 함께 생활하는 사



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맡은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는?

주말 <8 뉴스>, <스포츠 투나잇>의 성격이 달라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두 분야 다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겠다.

사원들에게 한마디

회사 생활도 잘 해내고, 방송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SBS의 슈퍼 루키'가 되겠다. 어느 선배님이 '슈퍼 루키'라고 불러 주셨는데, 고마운 한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곳에서 쌓은 크고 작은 경험으로 더 성장하고 온 만큼, 이제 탄탄하게 쌓아온 실력을 SBS에서 발휘하는 날만 남았다.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기자상 3개 부문 석권



뒷줄 왼쪽부터 윤영현 부장, 안혜민, 김학휘, 심영구
앞줄 왼쪽부터 이정찬, 이성훈, 안상우, 임찬중, 채희선

SBS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제342회 이달의 기자상을 휩쓸었다. SBS는 3월 22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의혹'(시민사회부 임찬중, 김기태, 이현영, 안상우), '사실로 드러난 컬링 대부 김경두 일가 전황'(스포츠부 이정찬, 김영성, 사회부 박재현), '2019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 분석'(뉴미디어제작부 심영구, 채희선, 이성훈, 김학휘, 안혜민)이 상을 받아, 지역 보도를 제외한 4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석권했다.

SBS는 지난해에도 7개월 연속 수상 기록과 함께 한해 동안 모두 12건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여 최다 수상 언론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미세 플라스틱' KBCSD 언론상 우수상



<SBS스페셜> '식탁 위로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연출: 황승환)이 3월 19일(화)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허명수) 주최 KBCSD 언론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KBCSD 언론상은 우리 사회 인식 전환에 기여한 신문과 방송에 주는 상이다. '식탁 위로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은 인류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꾼 플라스틱이 어떻게 위협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지 추적하여 경각심을 주었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 팩트체크대상



'전두환 회고록을 검증한다' 팩트체크 연속보도(박세용, 장훈경)가 3월 25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팩트체크대상은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주는 상으로, SBS는 작년에 이어 연속 수상했다.

SBS 스포츠 이승엽, 프로야구 중계 본격 합류



'국민타자' 이승엽이 SBS와 SBS스포츠에서 프로야구 해설을 맡는다. 이승엽은 3월 23일(토) SBS에서 생중계한 '2019 시즌 KBO리그 개막전' NCD야노스 vs.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24일(일)에는 SBS스포츠에서 팬들을 만났다.

아시아게임을 비롯한 스포츠 빅이벤트 경기를 중계하며 해설자로서 합격점을 받은 이승엽은 이번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설자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승엽은 "빈틈없이 준비해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 팬들 앞에 서고 싶다. 해설자로서도 최선을 다해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승엽은 현역 시절 국제대회 중계방송에 특별 출연한 바 있으며, 일본과 한국 무대를 두루 거친 경험으로 은퇴 이후에도 스포츠 빅이벤트 해설자로 활약했다. KBO 홍보대사, KBO 기술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인 이승엽은 프로야구 해설위원에 본격 합류하며 야구를 향한 열정을 이어간다.